

정서적 고립에 빠진 청년들

최수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 최근(2023년 1월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청년의 고립·은둔에 해당하는 추산 인원이 최소 12만 6,829명(4.5%)인 것으로 나타남(서울특별시, 2022).

- ‘고립 청년’은 최근 한 달 내 직업·구직활동이 없는 청년 중 정서적·물리적 고립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로 조작 정의하며, 이 중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은둔 청년’으로 정의함.

- ‘정서적 고립’의 경우 아래의 네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로 정의함.

- ①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 ②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③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④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표 1.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 규모 추정 결과

| | 비율 | 추산 인원 |
|----------|------|---------------------|
| 고립·은둔 전체 | 4.5% | 126,829명 ~ 129,852명 |
| 고립 | 3.3% | 93,820명 ~ 96,056명 |
| 은둔 | 1.2% | 33,009명 ~ 33,796명 |

자료: 서울특별시(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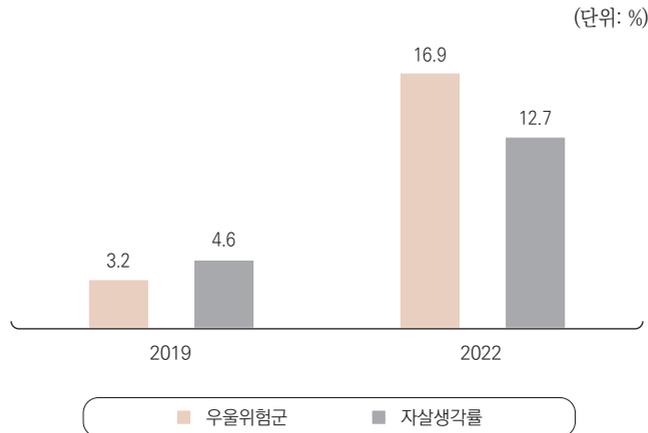
○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성인 인구 우울 위험군이 2019년 대비 약 5배가 넘는 규모로 증가함(2019년 3.2% → 2022년 16.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 연령별로는 30대가 24.2%로 가장 높고, 40대(17.0%), 50대(16.0%), 20대(14.3%), 60대(13.0%) 순으로 나타남.

○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 역시 2022년 12.7%로 2019년(4.6%) 대비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

- 30대가 18.8%로 가장 높았으며, 20대(14.8%), 40대(13.1%), 50대(9.8%), 60대(7.3%)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코로나19 전후 성인 정신건강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2022).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본 글은 청년을 포함한 성인 인구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2021)」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20대 청년(1999년생)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정서적 고립 문제를 분석함.

- 한국교육고용패널Ⅱ에서는 응답자의 물리적 고립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서적 고립'을 중심으로 분석함.

II 분석 자료 및 정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1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2021)」 5차년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심리·정서적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음.
 - 한국교육고용패널II는 1999년생 표본 패널을 대상으로 2016년 시작하여 매년 대상을 추적하여 교육, 고용, 가구, 사회 인식 등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음.
 - 5차년도(2021년)는 1999년생인 응답자가 만으로 22살이 되는 해였으며, 일반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경우 대학교 4학년인 시점임. 남성의 경우 군 복무 중일 수 있음.
- 분석 대상은 설문 중 정서적 고립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에 응답한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현재 교육 상태의 표본 규모가 한 자릿수로 매우 작은 집단(고등학교 중퇴, 일반대학 졸업/수료, 석사 재학 중)은 분석에서 제외함. 전체 표본 규모는 8,067명임.

표 2. 분석 자료

| | 구분 | 전체 응답자 수 | 비율(%) |
|-------|--------------|----------|-------|
| | 전체 | 8,067 | 100.0 |
| 성별 | 남 | 4,352 | 53.95 |
| | 여 | 3,715 | 46.05 |
| 현재 학력 | 고등학교 졸업 | 2,105 | 26.09 |
| | 4년제 전문대학 졸업 | 499 | 6.19 |
| | 4년제 전문대학 재학 | 598 | 7.41 |
| | 4년제 전문대학 휴학 | 571 | 7.08 |
| | 4년제 전문대학 중퇴 | 71 | 0.88 |
| | 4~6년제 대학교 재학 | 2,388 | 29.60 |
| | 4~6년제 대학교 휴학 | 1,773 | 21.98 |
| | 4~6년제 대학교 중퇴 | 62 | 0.77 |

- 주요 분석 변수는 서울특별시의 정서적 고립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변수를 참고하여 이와 유사한 <표 3>의 문항을 활용하였음.
 - 서울특별시의 ‘정서적 고립’의 상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상황은 세 가지로 제시됨.

표 3. 정서적 고립 설문 문항

| 항 목 | 없다 | 1~2명 | 3~4명 | 5~9명 | 10명 이상 |
|-------------------------------------|----|------|------|------|--------|
|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③ | ④ | ⑤ |

주: 질문은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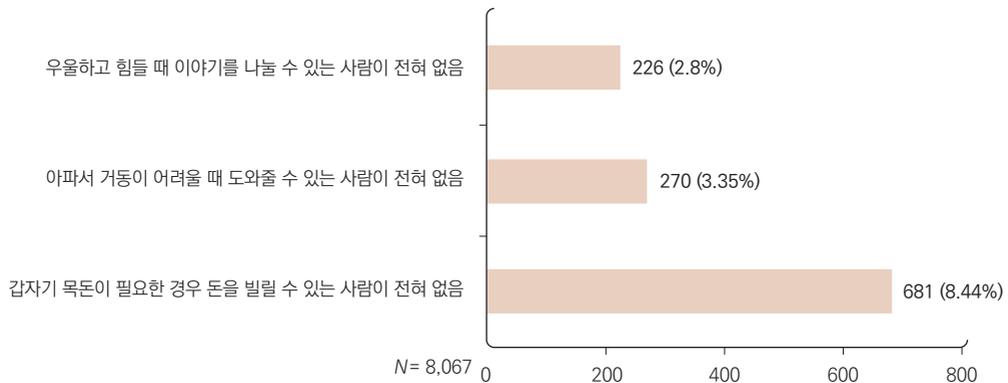
○ 본 글에서 '정서적 고립'은 표 3의 문항 중 한 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정의함.

- 고립과 은둔에 대해서는 국내에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연구자마다 정의하는 바가 다름. 본 분석은 서울특별시(2022)의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로 함.
- 친구나 지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의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하는 것은 현실에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유무를 떠나 응답자가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일 수 있음을 암시함.

○ 그림 2는 정서적 고립 설문 문항에 각 항목별로 '없음'이라고 응답한 규모이며, 세 가지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에서 '없음'이라고 응답한 '정서적 고립'에 해당하는 표본은 총 890명임.

그림 2. 정서적 고립 문항 응답 결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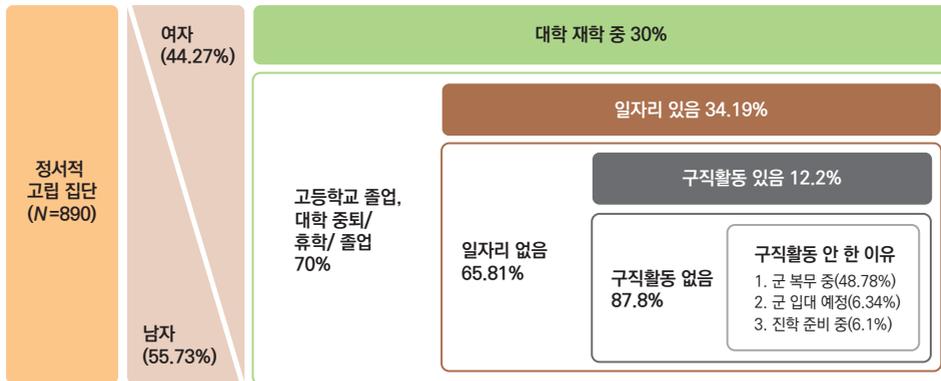


Ⅲ 분석 결과

□ 정서적 고립 집단 분해

- [그림 3]은 정서적 고립 집단을 성별, 학력별, 경제활동 상태별로 나누어 분해한 것임.
- 정서적 고립 집단 내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남성의 표본 비중 자체가 높았던 것에 기인함.
 - 성별 분석은 각각의 성별 집단 내에서 정서적 고립 발생 빈도를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함[그림 4].
- 정서적 고립 집단 내 25.39%는 군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남성임.
 - 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고, 일자리도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군인임.
 - 2021년은 응답자 연령 만 22세로 남성의 경우 군 복무 시점임.
 - 군 복무 혹은 입대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 정서적 고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정서적 고립 집단 내 30%만이 전문/일반대학 재학 중임. 이는 전체 표본의 대학 재학률(37%)을 고려했을 때도 다소 낮은 비중임.
- 심리적으로 고립된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실제 사회적 측면에서 고립된/고립될 상태일 확률이 높음. 이는 후반부의 '정서적 고립의 위험성'에서 보다 자세히 다룸.

그림 3. 정서적 고립 집단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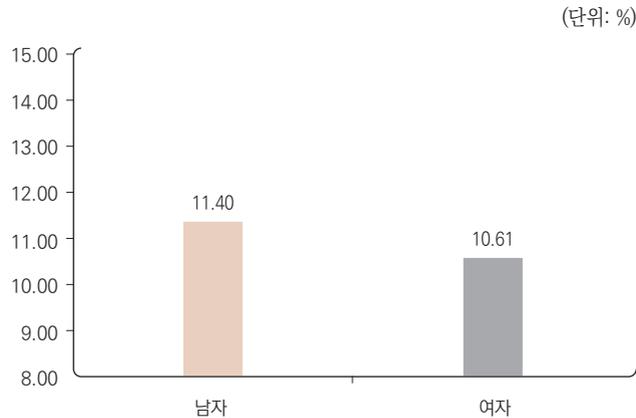


□ 정서적 고립 발생률

○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표본의 약 11% 수준에서 정서적 고립이 나타남. 여성보다는 남성의 정서적 고립 비율이 0.8%p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성별 간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님. 다만, 일반적으로 여성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심리적·정서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남성에 비해 더 잘 빠질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현실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에 따르면, 자살생각률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남성의 자살생각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서적 고립은 특정 성별이 더 잘 나타난다기보다는 남성과 여성 둘 다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개인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차이가 특정 성별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그림 4. 성별 정서적 고립 발생률



○ (학력 상태) 현재 학력 상태를 기준으로 심리적 고립 발생률을 따져 보았을 때, 일반대/전문대 중퇴 집단에서 정서적 고립 발생률이 14%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대 재학 중인 그룹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중퇴로 인해 정서적 고립이 나타난 것인지, 정서적 고립이 중퇴로 이끈 것인지에 대하여 선후 관계는 알 수 없지만, 교육 중단 그룹에서 정서적 고립이 높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절대적인 관측치 수 자체는 ‘고등학교 졸업’ 집단이 가장 많았지만, 그룹 내 발생 비율로 계산했을 때는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 응답자의 현재 거주지 중심으로 보았을 때, 정서적 고립 발생률이 주로 충청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전라도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위 4개 지역이 모두 충남, 대전, 충북, 세종으로 충청 지방에 집중된 것은 의외의 결과임.
- 권역별로 유사한 발생률을 보이고 있음(광주, 전북, 전남은 모두 하위권임).
- 지역 간, 권역 간 분포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은 찾지 못함.
- 절대적 관측치 수 자체는 서울과 경기도가 높았지만, 전체 표본 대비 발생률로 보았을 때는 두 지역 모두 평균(11.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학력 상태별 정서적 고립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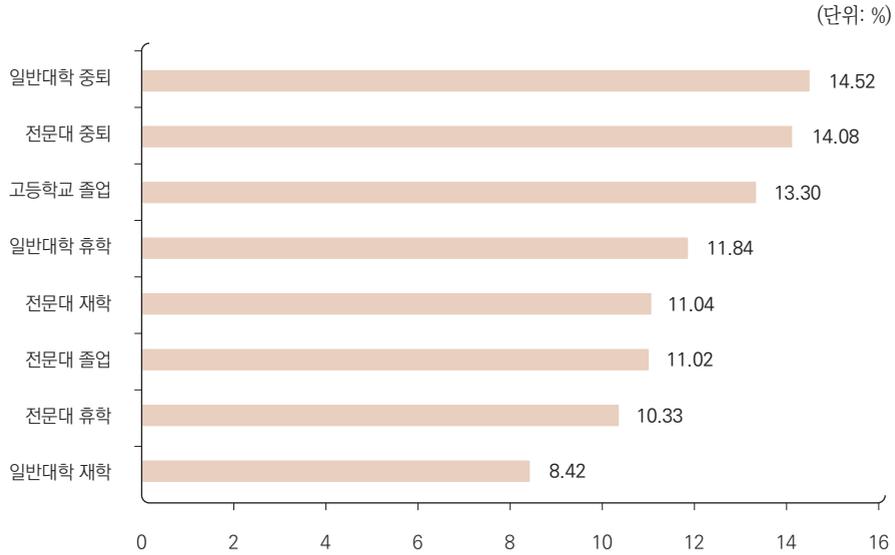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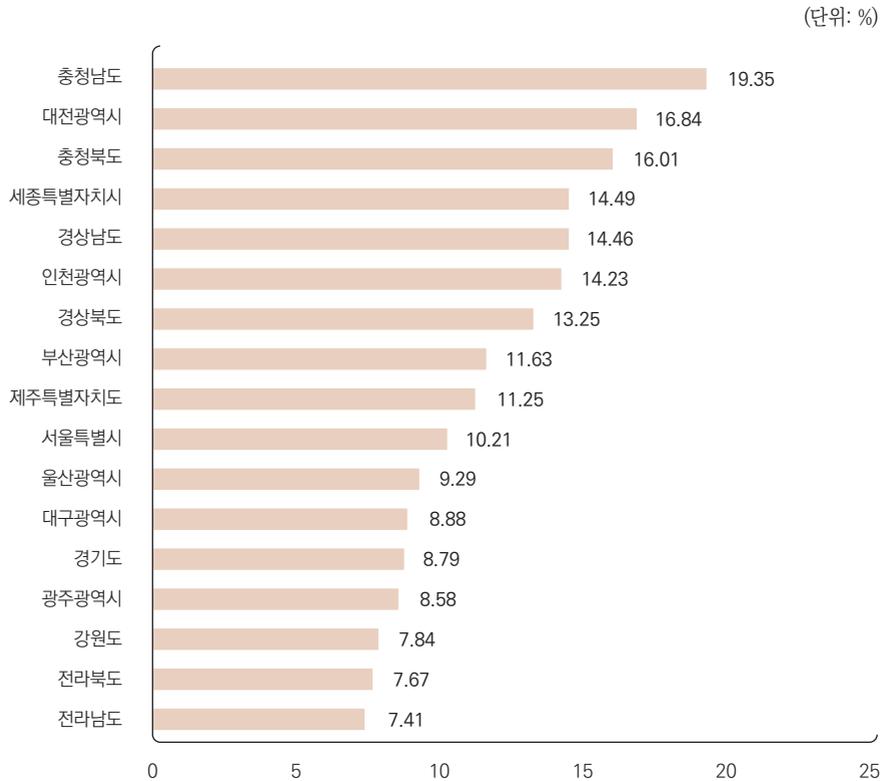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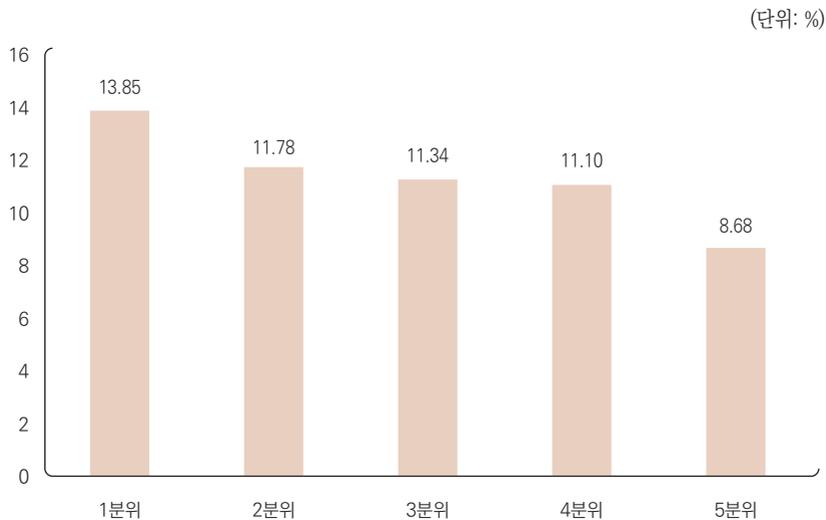
그림 6. 지역별 정서적 고립 발생률



○ (부모 소득수준) 부모의 소득수준을 5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에서의 정서적 고립 발생률을 보았을 때, 1분위(하위20%)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며 5분위(상위20%)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부모 소득 1분위와 5분위와 같이 극단적 가정의 경제 환경 차이에 따라 정서적 고립의 발생률이 5%p 이상 차이 날 수 있음을 보여 줌.
- 2, 3, 4분위의 경우 11% 수준에서 거의 유사한 수준이지만,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조사 시점이 응답자가 만 22세인 시점으로 아직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일 확률이 높아 부모의 소득 변수를 활용함.
- 2020년 어머니와 아버지의 월 실수령액의 합을 기준으로 5분위로 분류함.

그림 7. 부모 소득수준별 정서적 고립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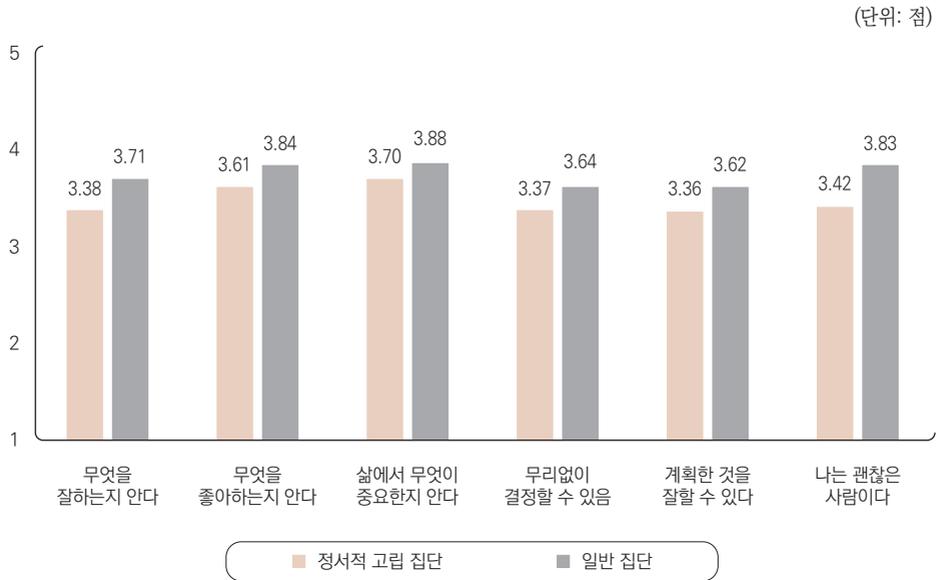
□ 정서적 고립 집단과 일반 집단의 차이

- 고립 집단과 일반 집단 간의 특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정서적 고립으로 정의한 890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응답자 7,177명을 ‘일반 집단’으로 정의함.
- (자기 이해) 정서적 고립 집단의 경우 일반 집단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의 자기 이해 수

준과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8은 자기 이해와 관련된 6가지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을 활용하여 정서적 고립 집단과 일반 집단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고 있음.
- 모든 문항에서 정서적 고립 집단의 자기 이해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집단과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와 같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었음.
- 만 22세(대학교 4학년)로 사회에 막 발을 디디기 전 시점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 수준과 긍정적 인식이 떨어지는 경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취업을 하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그림 8. 자기 이해 수준 차이



○ (신뢰 수준) 다양한 집단에 대한 평균적인 신뢰도 차이를 보았을 때, '낮선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 대해 정서적 고립 집단이 일반적인 신뢰 수준보다 낮은 신뢰 수준을 보임.

- [그림 9]는 각 집단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부터 '매우

신뢰한다(4)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해 정서적 고립 집단과 일반 집단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고 있음.

- 정서적 고립 집단은 가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신뢰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 친구, 직장동료와 같이 사회생활을 통해 알게 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정서적으로 고립된 사람의 경우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직에 대한 적응과 관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 [그림 8]과 [그림 9]를 보았을 때, 정신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신뢰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대한 신뢰 수준도 떨어질 확률이 높으며 이는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개인의 심리적 고립이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함.

그림 9. 신뢰 수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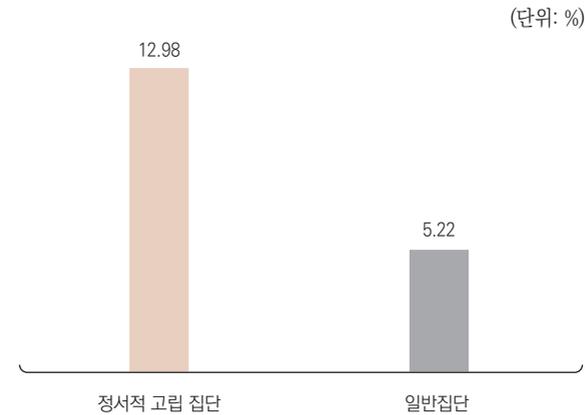


□ 정서적 고립의 위험성

○ (자살 충동) 정서적 고립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 충동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12.98%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약간/매우 그렇다)한 비율임.
- 청년의 인구 내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서적 고립 집단의 13%에 육박하는 비율이 자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정서적 고립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닌, 잠재적 사회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줌.

그림 10. 자살 충동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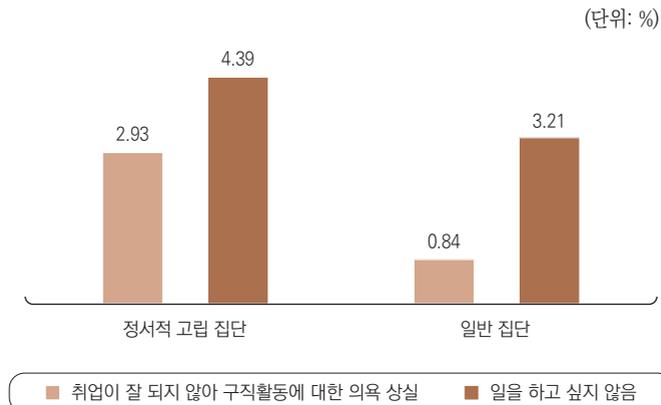


자료: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에 '약간/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 (구직 의욕 상실) 정서적 고립 집단의 경우 구직 의욕을 상실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응답자의 비중이 일반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재학 중이지 않으며, 일자리도 없는 사람은 니트(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족으로 분류되며, 이 중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별됨. 구직을 하지 않는 이유에 따라 구직 포기 및 단념자로 개념이 구체화되는데, 정서적 고립 집단의 경우 이러한 구직 단념자에 가까운 비중이 일반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그림 11]은 지난 1개월 내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14가지 중 구직 의욕 상실과 관련된 응답 비율임.

-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구직 활동 의욕 상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집단에 비해 정서적 고립 집단에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2.93% > 0.84%)
- 순수하게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라고 응답한 비중은 정서적 고립 집단이 4.39%로 일반 집단에 비해 1.1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1]은 '지난 1개월'과 같이 단기적인 비구직 활동 사유를 보여 주는 것임. 그러나 구직 의욕 상실은 장기적 경제활동 비활성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정서적 고립 집단의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활동 불능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관리 및 지속적인 사회활동의 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11. 구직 의욕 상실



주: '지난 1개월 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대한 해당 사유 선택 비율임.

IV 요약 및 결론

- 고립·은둔 청년은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고립·은둔 청년은 정서적, 물리적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청년으로 흔히 '히키코모리'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감.
 -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의 고립·은둔의 종료 시기가 불분명하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이어진다는 데에 있음.

- 2022년 서울시 추산 고립·은둔 청년은 최소 12만 6,829명(서울특별시, 2022)임.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성인의 정신건강(우울 및 자살생각) 악화로 고립·은둔 청년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됨.

○ 본 글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 자료를 활용하여 20대(1999년생)의 정서적 고립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정서적 고립 발생률의 경우 성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남성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 상태별로는 교육 중단 상태(일반대/전문대 중퇴)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1분위(저소득)에서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5분위(고소득)에서 가장 낮았음.

- 그 외에도 지역별 발생률을 보았을 때, 충청 지역(충북, 충남, 대전, 세종)의 발생률이 가장 높고 전라도 지역의 발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별 발생률 차이를 설명할 만한 특징은 찾지 못함.

○ 정서적 고립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일반 집단에 비해 '자기 이해'가 모든 항목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긍정적 자기 인식'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회에 대한 신뢰 역시 일반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이러한 정서적 고립 문제의 심각성은 해당 집단의 자살 충동률이 일반 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구직 의욕 상실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음.

- 정서적 고립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감정적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사회적 불능 상태 고착화, 혹은 자살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음.

○ 이처럼 청년 계층의 정서적 고립 문제는 단기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코로나19 및 거리두기의 완화로 앞으로는 따라 청년의 고립·은둔 문제도 다소 해소되기를 기대하지만, 저성장·고물가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생활 및 사회참여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으므로 꾸준한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임.

- 고립·은둔이 장기로 이어지고 있는 청년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참여 계기 마련이 필요할 수 있음.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22).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8. 10.).

서울특별시(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